

‘조직 안정’ 최우선 과제... 지역상생·미래 新사업 발굴 관건

BNK금융 차기 회장에 빈대인
6년 만에 내부출신 회장 내정
조직 이해도·관리 역량 탁월
내부조직 안정화 책임자 평가
디지털중심 변화 주도 기대감



BNK부산은행 본점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차기 BNK 금융그룹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돼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면 6년 만에 다시 내부출신 회장이 BNK를 이끌게 된다.

1960년생인 빈대인 전 은행장은 32년간 함께한 ‘BNK 혈통’ 인사로 꼽힌다. 최근 어수선해진 BNK금융 내부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다.

◆ **탁월한 리더십 ‘안정’ 기대**

빈 차기 회장의 첫 과제는 조직 안정이다. 김지완 전 회장이 임기를 앞두고 용퇴하면서 BNK금융의 조직 분위기는 흐트러진 상황이다. 빈 차기 회장은 그룹이 불안정한 시기에 행장을 역임한 만큼 조직 안정에 책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의 장점은 ▲지역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 ▲탁월한 조직 관리 역량이다. 1988년 부산은행 입행으로 그룹에 합류한 그는 영업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 신금융사업본부장, 미래채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17년 4월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구속되자 행장 직무대행에 발탁됐고 같은 해 9월 행장으로 정식 취임해 3년간 경영을 책임지다가 2021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바 있다.

당시 빈 전 행장은 임직원에게 수차례 ‘CEO편지’를 보내며 추가조작 논란 등으로 어수선했던 내부 분위기를 안정

시켰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9일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룹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 **“지역균형 발전 부흥”**

BNK금융지주는 자산 규모 130조 원, 8000명에 이르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남권 최대 금융그룹이다. 수익 대부분은 지역 기업과 시민으로부터 창출되는 구조다. 동남권 경제의 자급족 역

할을 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하는 것도 경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지주회장 자격 요건에 대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임추위와 후보자는 BNK금융지주가 지방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한 뒤 BNK금융그룹 수장의 자격요건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와 경남, 울산, 부산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후보”를 제안했다.

금융노조는 “BNK금융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인재 채용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경영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BNK금융그룹 수익 대부분은 지역 기업·시민에서 나오고, 경남·울산의 긴 경제적 암흑기를 함께 극복하는 순간 그룹 미래가 열린다는 논리다.

◆ **“디지털 금융 확대...미래사업 발굴”**

최근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

진이 금융사도 IT와 융합된 신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빈 전 행장은 부산은행 재직 당시 디지털 및 신사업 책임자였던 만큼 향후 지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빈 전 행장은 2013년 지역본부장을 거쳐 경남영업본부장(부행장보)으로 선임됐다. 2015년부터는 부산은행의 핵심 사업인 디지털 및 핀테크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채널본부 부행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임추위 위원들은 빈대인 후보자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분야 전문성 ▲지역은행 최초의 모바일뱅크 출시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옴니채널 구축 ▲장구업무 페이퍼리스 추진 등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온 경력을 높게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금감원, 금융권과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함께 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금감원 외에도 KB국민은행·미래에셋증권·신한라이프·우리카드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4500만원의 후원금을 공동 마련해 서울 영등포구 관내 사회복지단체 4곳에 전달했다.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할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새 환경 선제대응 위해 낡은관행 손질”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신년감담회
화상통화 등 활용 가입 간소화

손해보험협회가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낡은 관행을 손질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사회 신(新)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산업 내 실화를 통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위험보장이란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재정



2023년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왼쪽 첫번째)이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비한다. 사회재난 보장특약을 신설하고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을 강화해 건강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맞춤형 펫보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보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또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독사 관련 보장 담보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낡은 금융규제와 업무방식도 바뀌나

간다. 화상통화, 플랫폼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서비스를 간소화 한다. 아울러 소비자 맞춤형 민원 해결 방법을 구축해 보험민원 처리에도 편의성을 더할 전망이다.

차사고 과실분쟁 해소 속도도 빨라진다. 보험금 지급 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카뱅 “우편함 대신 앱으로 확인하세요”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내 문서함’ 서비스를 출시했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예금잔액조회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행정안전부 국민서비스 문서 등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문서를 전자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서 도착 알림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격으로, 공인된 인증 자격을 갖춘 기관만

확보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 문서함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본인 확인기관’, 올해 1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까지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문서 열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9일 “다양한 인증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리인상에 은행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작년 11월말 연체율 0.27%
전월보다 0.02%p 올라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최근 조금씩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연체율’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7%로 10월 말 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36%를 기록한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

속되면서 2021년 말 0.21%까지 하락했다. 최근 금리인상과 함께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0.27%까지 다시 상승했다.

11월 한 달 동안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 분야에서 모두 올랐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0.22%) 대비 0.02%p 상승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4%로 전월 말(0.13%) 대비 0.01%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0.43%)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0.26%) 대비 0.03%p 올라갔다.

대기업만 전월과 동일한 0.07%의 연체율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0.30%에서 0.34%, 중소기업은 0.37%에서 0.40%, 개인사업자는 0.22%에서 0.26%로 연체율이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